

‘일심동체’... ‘현안대응’ 드라이브

불투명한 시장상황 체계적인 대응위해
생태계 조성 및 성장 동력 로드맵 마련
하자보수, 하도급 실손보상 등 4건 진행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사진 앞)을 중심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사진 가운데)·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사진 뒤)이 ‘한마음 한뜻’돼 위기극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응 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응 팀으로 하는 ‘현안업무 대응 팀’을 구성,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원과 협회, 그리고 조합의 연계대응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악화를 비롯해 급변하는 환경에 체계적이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응 팀은 먼저 업

계 주요현안, 정책 건의사항,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업무협조를 통해 문제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개원 6주년을 맞아 이미 정부·학계·단체·전문건설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마쳤는가 하면 유사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상생경영 생태계 조성 및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원은



복 출구전략을 찾는데 값진 땀을 흘려줬으면 더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재화 원장은 “건설경기

또 심도 있는 현안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는 물론 단순정보가 아닌 고급정보를 전달, 전문건설업체들이 불경기에도 건전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대응 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응 팀과 관련 유정호 사장(유호토건(주) 대표이사)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중소 전문건설업체 현실을 감안하면 현안해결의 시급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안업무 대응 팀을 구성, 위기극복에 앞장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대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위기극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연구원이 할 일은 현실적인 기여와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다”전하고 “정확한 분석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안업무 대응 팀은 이미 철근콘크리트 장기공사 하자보수 부담 경감방안을 비롯해 종합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전문건설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효성 확보방안, 하도급 계약보증의 실손 보상정당성 확보방안 등 4건의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경열 기자